

#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사랑하는 \_\_\_\_\_ 님에게

*"Friendship is born at that moment when one person says to another: 'What! You too? I thought I was the only one.'"*  
- C.S. Lewis <The Four Loves> -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나 혼자 견뎌 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벅찰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으로 밤새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작은 행복을 원하는데 왜 그 행복이란 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을까요?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가 있고 수입이 좋고 넓은 집이 있으면 훨씬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꿔봅니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그리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러닝 머신 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 죄의 결과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힘겹고 불공평한 곳이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원래 외롭고 허무한 곳이니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적당히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적당히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러는 굳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책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부조리의 원인을 우리의 죄에서 찾습니다. 물론 단순히 내가 겪는 고통을 특정 죄의 결과로 연결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일그러뜨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니다. 눈물도 아픔도 거짓된 것도 두렵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지음 받은 우리가 창조주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버렸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한없이 불완전해져만 갔고 그렇게 불완전해진 우리의 손에 의해 아름다웠던 세상도 옛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행인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불의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그리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 난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낸 피해자들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겐 나의 죄로 인해 오히려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겐 오히려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법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생각보다 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선한 사람이 불행하게 죽고, 악한 사람이 편안히 살다 죽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공과를 따지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불행한 죽음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의 편안한 죽음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후에라도 받아야 할 칭찬을 주시고,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면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의로우신 분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딱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 예수님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용서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 된 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세상,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세워 가셨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이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를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적대시했던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새로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채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계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각 사람 속에 들어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이, 불공평함이, 불의함이 다 해결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히 선한 나라입니다.

### 회복되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의 날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혼자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할 분으로 따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해 드린 이는 온전히 선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전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 ●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예화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월리스(Lew Wallace)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도말해 버릴 책을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분개하였습니다. 월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려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 제2장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쩔 수 없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폭로하려고 결심하였던 그분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후에 월리스는 지금까지 쓰여진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의 하나인 <벤허>를 썼습니다.